

제3기 자원봉사대학 수강생, 갈대밭 황금빛 동행

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함께한 즐겁고 추억이 된 가을 나들이

강진군이 지난 29일, 제3기 자원봉사대학 교육과정 중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강생 20여 명과 강진군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 20여 명 등 총 40여 명이 함께 '강진 갈대축제' 장 체험 나들이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수강생들이 배운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실천하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가을 정취가 물씬 풍기는 갈대밭을 함께 거닐며 사진을 찍고, 지역 특산품을 체험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수강생들은 장애인복지관 이용자들의 이동을 돕고, 체험활동을 함께하며,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통해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되새겼다.

행사에 참여한 한 수강생은 "자원봉사에 대해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장애인분들과 직접 교류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또한 "평소 나들이가 쉽지 않았는데, 자원봉사대학 분들이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오랜만에 마음껏 웃고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며 "이런 시간을 통해 서로가 더 가까워질 수 있어 정말 행복했다"고 말했다.

김은숙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체험활



동은 단순한 나들이를 넘어 장애인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는 교육의 장이었다"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포용적 봉사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 자원봉사대학은 오는 11월까지 운영될 예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강진군을 이끄는 자원봉사 리더를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강진/손경설 기자



광양경자청, 의료기기산업 전문가 간담회 개최

신성장 동력 의료기기산업 중심으로 광양만권 투자 활성화 방안 모색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구중곤, 이하 광양경자청)은 10월 31일 광주 라마다프라자 총장호텔에서 '의료기기산업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광양만권의 신성장 동력으로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도이프 윤성욱 대표, 광양보건대 전우용 총장 직무대리 등 전국의 의료기기 분야 산·학·연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내외 의료기기 및 바이오산업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의료기기 기업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활성화 전략을 함께 모색했다.

행사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김정상 팀장의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 트렌드와 전망' 발표로 시작했다. 발표를 통해 참석자들은 광양만권에 적합한 의료기기 기업 유치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치과·생체재료, 디지털 헬스케어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의료기기 특화 산업 육성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광양만권은 화학·철강·이차전지 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국가 핵심 생산거점으로, 산업 인프라와 물류 접근성이 뛰어나 의료기기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했다. 또한 "청년 일자리와 시니어 산업이 공존하는 특성을 살려 인공지능(AI), 로봇, 생체의료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한 미래형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고부가가치 기업 유치와 기술 중심형 스타트업 발굴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구중곤 광양경자청장은 "이번 간담회는 의료기기산업이라는 미래 먹거리 산업을 중심으로 산·학·연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 광양만권이 의료기기산업을 비롯한 신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투자유치와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제16회 광주·전남 사회공헌대축전 종합대상 수상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본부장 이영희)는 10월 29일(수), 광주 서구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서 열린 '제16회 광주·전남 사회공헌대축전'에서 종합대상(광주광역시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지원, 의료봉사, 환경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는 올해 △전남 진도군 의료·빨래봉사 △은둔·고립청년

지원사업 △위기임산부 지원사업 △광주·전남지역 수해복구 △영유아 돌봄봉사 △독거노인 배식봉사 등 다각적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해왔다.

이영희 본부장은 "이번 수상은 임직원 모두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광남일보가 주최하는 광주·전남 사회공헌대축전은 지역 내 공공기관, 기



업, 단체 등이 추진한 사회공헌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공동체의 상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다. /이승원 기자

나주시 봉황면지사협, '반짝반짝 돌봄봉사단' 이웃사랑 '호핑'

2022년부터 4년간 매년 10여회... 어르신·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서비스

전라남도 나주시 봉황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양기·홍정석, 이하 봉황면지사협)는 지난 29일 용전리 용두마을에서 '반짝반짝 돌봄봉사단' 특화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반짝반짝 돌봄봉사단' 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봉황면 지사협의 특화사업으로 낚시·방충망과 노후화된 전선 및 횡랑등 교체, 주방용 칼갈이, 이마용, 건강 체크, 한술밥 먹기 등 9개 분야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짝반짝 돌봄 봉사활동'은 올해도 총 6회에 걸쳐 추진되었으며 전등 교체 52가구(128개), 방충망 교체 45가구(135개), 주방 칼갈이(443개), 이마용(55명), 화재경보기 설치(54개), 이불 빨래(31제), 가스 안

전차단기 설치(177가구) 등으로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사업에 참여하는 돌봄봉사단은 복지기동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이장단, 부녀회 등 지역 사회단체는 물론 나주소방서, 동행노인복지센터, 혁신도시에 있는 쏘이살롱 등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봉사에 참여한 김 모 씨는 "오늘 흘린 땀방울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생각돼 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주민은 "건강 악화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봉사단의 도움의 손길로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며 "모든 분이 건강하셨으면 좋



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홍정석 민간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을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 뿐만 아니라 취약 계층에게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대상자를 적극 발굴,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데 앞장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양기 봉황면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남다른 관심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물질양

면으로 도움을 준 지사협 위원, 자원봉사자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힘을 모아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 복지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한빛본부, 지역 중소기업 종사자 안전사고 예방 활동 시행

한빛원자력본부(본부장 김성면)는 협력사 및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안전관리 지원 활동을 시행하였다.

한빛본부는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사업'에 참가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안전보건 컨설팅을 시행하고,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한빛본부는 지난 4월부터 협력사 및 지역 중소기업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안전관리 지원 활동을 진행하였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 지역 중소기업을 기존 1개 업체에서 5개 업체로 대폭 확대하여 지역 내 안전 문화 정착에 힘을 보탤다.

한빛원자력본부는 내년에도 대상 기업을 더욱 확대하고 지속적인 산업안전 지원 활동을 펼쳐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예정이다. 영광/이현식 기자

2025 장성 방문의 해

국내 최대 규모 인공조림
축령산 편백숲

장성이 보내온 힐링 초대장

장성군 Jangseong